

#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5, 읊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 생각에 발표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종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을 때려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 작업을 한 페이지짜리 종지로 제출하세요

나는 그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손글씨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종이와 함께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소액 분할이 아닌 하나의 문서로 모두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금요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강제는 없지만 5시 30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가 내가 캠퍼스를 떠날 때이고, 그 때가 바로 죽음의 시간이다. 그러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편함도 확인하고 문 밑도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5시 30분에 인쇄본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메일 첨부 파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첨부 파일이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논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원래 읊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나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말은, 나는 실제로 욥의 친구가 한 말에 나오는 아주 작은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놀라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잘못 적용할 뿐입니다. 이것은 욥기 25장 2절에서 나오는데, 주권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높은 곳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의 높은 곳에 질서를 세우시니 곧 거기 있는 것이니라. 샬롬은 여기 NIV에서 명령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여기서도 평화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샬롬,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오세 샬롬 비므로마프(oseh shalom bimromav).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는 지금 당장 여기에 와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 샬롬 비므로마프. 오세 샬롬 비므로마프.

누구야? 오세 샬롬 알레이누?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질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Ve'al kol 이스라엘, 베임루.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베임루, 베임루, 아멘이라고 말하세요.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아멘, 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확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후렴이 나오는데, ya oseh shalom, ya oseh shalom, let he make Peace, let he make Peace, shalom aleinu, ve'al kol Yisrae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가 없으면 정말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문제와 도전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정말로 우주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하늘에 질서, 완전한 질서를 만드신다는 사실에서 눈을 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욥기를 연구하고 욥이 어떻게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전망과 씨름하는지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러한 심오한 진리에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질서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시련과 고통과 좌절로 씨름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 리뷰 슬라이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먼저 검토한 다음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잠언은 교훈적이다.

그것은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을 소개하면서 처음 여섯 구절조차 본질적으로 인생 과정에 대한 강의 계획서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금요일에 다루게 될

전도서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며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다루었던 모든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서정시, 사랑의 시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전도서와 아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은 옴이 이런 심오하고 사변적이며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처음 20분 정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과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말로 다루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단순히 강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 본문 중 어느 것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 작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확실히 초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옴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많은 그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그가 몹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그의 아내가 있고, 그의 집은 찢겨져 있으며,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아주 형편없는 상담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진행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4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서, 진저.

좋아요, 그럼 그것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누군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는 뜻인가요? 아마도? 아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잔나.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 둘을 어떻게 합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한 말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메리. 욥이 그렇게 정직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진실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은 Ginger가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Ginger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고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말은,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챕터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 . 기본적으로 31까지의 3개는 문헌의 형태에서도 이것이 그에게 장기적인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서, 당신은 내가 이 시점에서 욥과 친구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응, 계속해, 케일린. 좋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욥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우리는 첫 장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글썄,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음, 질문들 사이에 일종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정의. 신정론은 욥기의 목적 중 하나인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제기되는 용어입니다.

즉, 신정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와 관련하여 그 용어를 헛갈리게 하려면 그에 대한 정의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당화한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악의 존재에 맞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신권론입니까? 즉, 신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Caelan은 여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그것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질문은 옴이 신정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인간의 고통에 맞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케이티, 고개를 끄덕이는군요. 큰 소리로 고개를 끄덕이고 싶나요? 나는 네 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옹호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네 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 전능하심을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봅니다.

그것이 그의 선함을 전달하는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인가요? 당신은 그러한 주권적인 영역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지만,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옴의 지속적인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의 장점을 전달하는 건가요, 맥케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매우 신실하시다는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반역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 응, 카시아, 카시아.

또한, 그에 더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불만을 듣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고 겸손하고 겸허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책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데릭 키드너(Derek Kidner)가 쓴 잠언, 욕기,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는 훌륭한 구약성서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이것이 신정론이라고 말하려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Kidner는 여기서 다른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이 신정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미안해요, 케이티.

인간은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주장할 권리를 스스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신정론이 아니다. 즉, 일단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고난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욕이 자신의 감옥에서 풀려난 영적 순례에 관한 이야기이며 항복하는 순간 구원받을 권리와 회복할 권리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통이나 도덕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한두 페이지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는 욕의 수난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초기 모습을 본다고 말합니다.

욕이 맹목적으로 바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의 지옥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욕과 인류의 모든

직업에 대한 최종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작은 방식으로라도 여기서 옳이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실 때 중재하고 중재할 누군가를 찾고 갈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약간의 예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속자.

우리가 성육신한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Kidner의 흥미로운 생각이군요.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질문들 각각에 답할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응, 레베카. 나는 단지 그가 신정론에 대해 정의한 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신정론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정론을 시도하는 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두려는 오만한 시도입니까? 아마도.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확실히 옳기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관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결론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키드너가 일반적으로 신정론의 전체 개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여기가 아닌 영국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음,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을 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정말로 망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트레버.

질문이 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가져오셨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악을 가져오시는 것과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뇨.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한 시간 내내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선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주권의 복잡성에 관한 어떤 것에는 실제로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빛을 창조하고 악을 창조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것은 철학자와 신학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편 76편에는 사람의 노여움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로마서 8장, 28장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정의가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그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또 다른 키드너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지만 그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능하심이 악을 진멸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악을 손에서 꺾는 것이 아니라 악과 씨름하는 것이었고, 강함보다는 약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보다 인간을 통해, 단호한 거부보다는 옴의 맥락에서처럼 값비싼 허가를 통해 더 자주 말입니다. 문제를 우리 자신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부권이 아니라 공정한 전투를 통해 악을 극복하겠다고 결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내가 악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악과 씨름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을 확실히 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성을 입고 씨름하는 대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로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특히 5장에서 말하고 이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요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우나요? 나는 이것에 대해 조금 이해했지만 조금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탄의 번역인 하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또는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 옴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레베카?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만 묻는 건가요? 아, 아니, 각각에 대해 뭔가가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 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펼쳐지는 전체 내용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옴이 결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서사적 소개입니다. 계속하세요.

글쎄, 사탄과 대적, 그것은 약속이나 그런 것에서 여전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이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 NIV가 천사로 번역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섰습니다. 그리고 대적 하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등등.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대적은 바로 하늘 왕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 옴에 관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옴에 관해 무엇을 배우나요? 미안해요, Matt. 바로 가세요.

좋아요, 그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을 더욱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는 자녀의 영적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의 결과로 무엇을 합니까? 응, 5장. 잔치 기간이 끝나면, 예, 예수님, 옴은 그들을 보내어 그들을 정결케 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번제를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옴이 중보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잠깐만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욕에 관해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욕을 묘사하는 일종의 표준 표현입니다. 그것은 구절에 나타납니다. 음, 그것은 이 처음 두 장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라야, 표준적인 표현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려고 했니? 글썄, 이것이 표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책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리더십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상황의 일부이지만 흥미롭게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레버. 네, 그러면 그의 의로움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역대 가장 의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죠. 응, 미안.

자,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유일한 목표가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기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거 본 기억나? 네 가지 특징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 이상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를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봅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의 일부인 이 인물들, 특히 처음 두 인물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어서 가세요, 매트. 예, 원한다면 사탄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일찍 말하기 시작한 것을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내 종 욕을 생각해 보았느냐? 내 말은, 이 정직한 사람에게 대적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선하며,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악을 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울타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등등.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치는 사탄의 능력과 마지막으로 2장에서 욥 자신을 치는 사탄의 능력에 관한 키드너의 표현으로 돌아가도록 허락, 즉 값비싼 허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기서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방금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욥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머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7장, 특히 21절과 22절에서 우리는 지금 거기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식으로든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만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끔찍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끔찍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글썄, 계속하자.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그 일을 통해 얻은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동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언약 안에 세워졌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과 28장.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불순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도 사탄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고 울타리를 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책을 덮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순종에 대한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언약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보호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똑똑하다면 그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나요? 카시아? 그리고 욥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지 않나요?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아내가 기본적으로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환난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욥의 심오한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며 그 사랑에서 순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책과 그 장들, 특히 이 시적 장들에서 욥이 말한 내용을 읽을 때, 그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정말로 그것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음,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반응 중 무엇이 그렇게 부적절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결국 그들은 정의의 기본 원칙을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수잔나. 엄청난 농담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무엇을 위해 일어섰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공로로 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 그들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그들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내 말은, 우주에는 정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 키드너는 어느 시점에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거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교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글썄요, 아마도 우리는 교황직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교황이란 무엇입니까? 교황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것은 마치 왕과 교황과 같습니다.

실제로 교황입니다. 응, 맞아. 내 말은, 그것은 전체 종교 체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창하게 말할 때, 당신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방금 말했듯이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부드럽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이 끝날 무렵에는 정말 가혹해집니다. 글썄요, 흥미롭네요.

욥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제가 읽어 드린 짧은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는 은혜롭습니까? 설마. 어느 시점에서 Essence는 이를 많은 윈드백(windbags)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 대한 그의 반응, 어쩌면 우리는 친구들을 따옴표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음, 그것은 그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 그들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둘 다 동의합니다. 내 말은,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욥을 포함하여 둘 다 적절한 정통 신학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친구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했을 뿐이며, 욥은 그것이 지금 그의 상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수잔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약간의 말썽을 피울게요.

그리고 그것은 '미안해요'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응? 글썄요,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면서 16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확실히, 오 하느님, 당신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 전체를 황폐화시켰어요.

9절, 하나님이 나를 치시매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시니 나의 대적이 나를 꿰뚫는 눈으로 쳐다보나이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한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도다 모든 것이 나에게 좋았지 만 그는 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내 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짓밟았다. 그는 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궁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엾게도 그는 내 신장을 뚫고 내 담즙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달려들어 전사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내 피부에 굵은 베를 꿰매고 내 이마를 먼지 속에 묻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지고 , 깊은 그림자가 내 눈을 올린다. 찬양의 노래인가요? 알았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울이 있으니 당신이 사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친구인 사람에게 묻는 것 같으니, 나한테 왜 그랬어요? 자,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당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왜 나를 지나치는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짓을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정직함은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의 일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그런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맥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옳습니다. 예를 들어 9장이나 12장을 백업하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옴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양의 선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옴은 내가 주권에 대해 최대주의적 견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며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가 너무 행복할 때 그분이 내 삶과 우주를 통제하시고 나는 다음 단계에서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 삶의 추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 파괴적인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더 큰 맥락이 분명히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가 현장에 들어가면 이러한 반응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레베카. 욥이 말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38장부터 시작하여 41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음성 응답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에 대해 말해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는 시적인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42장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2장에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42장.

그래, 그럼 신이 배상을 해주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 흥미롭지 않나요? 누가 배상금을 지불했나요? 토라로 돌아간다면? 뭔가를 훔친 사람이죠? 물건을 훔치면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소유한 것의 두 배를 갚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친구들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두 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여기서 특별한 진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다 갚으시고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 아니오? 아무도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죠? 어서 가세요, 매트. 아, 아주 좋아요. 42장 7절과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옘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엘리바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다음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NIV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번역판에서는 당신이 내 종 옘처럼 나에 대해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너는 내 종 옘처럼 나에 대해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당신에게 던져 보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경에 조금 적어 두십시오. 그곳의 히브리어가 가장 잘 번역되었습니다. 이 동사와 전치사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을 말하든 to 또는 to로 렌더링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 종 옘처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종 옘이 말한 것 같이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그들을 비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옘이 줄곧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를 대신해 중재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 친구들이 거기 앉아서 그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모든 것과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기 번역, 즉 칠십인역의 헬라어 번역은 이것을 적절하게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도 같은 일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어떻게 든 우리 영어로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도 이 말을 해야겠다. 아시다시피 번역은 큰 문제입니다. 한 단어의 매우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일 수 있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단지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용어가 둘 다 내장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에 대해, 관련하여, 등등. 하지만 내 생각엔 'to-ness', 'to-ness'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욥은 매우 정기적으로 중보자를 중재해 왔습니다. 욥은 중재자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몹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오지 않고 욥을 대신하여 중보자, 중보자가 되지 못함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욥은 자신의 중재자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더욱 큰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나요? 흥미롭게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중얼거리는 저만의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마도 이 책에 대한 좀 더 배경지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욥이 우츠 땅 출신이라고 하면 원하면 우즈라고 발음해도 되는 건 알지만 우츠인 거죠? 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그것이 에돔, 즉 에돔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충분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애가 4장 21절에서는 에돔과 병행하여 우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창세기 36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친구 중 한 사람인

에서의 후손인 엘리바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가능한 위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시대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침묵에 따른 논쟁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옴은 몇 살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작은 힌트를 기억하시나요? 결국 42장에서 옴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연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맵소사,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있고 족장들도 정말 저 위에 계시지 않나요? 187. 따라서 옴의 수명은 그가 족장 시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 남자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문에 앉은 자로서 권위와 존경의 자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60대, 50대, 60대, 70대쯤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연령 범위, 그 수명조차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그가 아마도 가부장제 시대에 살았을 것임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밖, 아마도 에돔 어딘가의 장면을 대표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기간을 대표한다고 해도 서술적 슬래시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적 형식.

즉, 이 책은 언약 공동체의 우산 아래 책으로 편집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자라는 주제 전체가 나타나고 구속자는 매우 언약의 일부인 개념. 너무 복잡해서 낱자와 저자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에 대한 오랜 구전 전통을 거쳐, 아마도 이스라엘 시대의 지혜 문학이 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에 이 책이 합쳐졌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늦게, 훨씬 더 늦게 넣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나요? 좋습니다. 이 책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 내러티브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형식이 아닌 산문 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성격이 확립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이 책에 대한 서술적 틀을 가지고 있고 처음 두 장은 우리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재하는 사람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하는 하늘의 장면을 갖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사람 등을 한 번 보세요.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42장은 친구들이 책망을 받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하거나 부재합니다.

이제 그 전체 책망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강의가 몇 개 더 있다면, 그 강의를 통해 씨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강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욥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회복에 관해서 간단히 제안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것은 의로운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시험 끝났어, 알았지? 옴은 시험을 받았고 이제는 끝났으며 옴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천국의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독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응, 수잔나. 아니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좋은 질문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요' 뿐입니다. 관찮은. 책의 구조 측면에서 나는 여전히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옴의 첫 번째 진술이다. 친구들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은 7일 동안 그와 조용히 앉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꽤 능숙합니다.

인상적이네요. 그것은 인상적이며 그들은 그가 먼저 말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문화 전반의 문제입니다. 옴이 먼저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는 창조질서 전체가 전복되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10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둠과 깊은 그림자가 나의 탄생을 덮기를 바랍니다. 즉, 창조의 날의 질서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8절.

날을 저주하거나 바다를 저주하는 자는 그날을 저주하고, 일어나려는 자의 다음 말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관찮은. 이제 질문은 리바이어던이 누구이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41화에서 다시 등장하니까요.

그러나 욥은 이미 자신도 이 리워야단 캐릭터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꽤, 음, 불길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시적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각 사이클은 긴장, 분노, 좌절의 측면에서 일종의 수준을 높입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꽤 좋은 출발을 합니다.

욕이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4장에서 다소 흥미로운 진술을 합니다. 12절의 한 말씀이 나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내 귀에는 그 속삭임이 들렸다.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고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영혼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것은 멈췄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 형체가 서 있었고, 나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해진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순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책망하시거든 하물며 흙집에 사는 자들이리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욥을 죄로 고발하기 시작하는 매우 영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피조물이라도 죄에 굴복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흙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 난 그냥 머리 속에서 이걸 생각해낸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와서 그에게 겁을 주어 그에게 이 메시지를 알리는 전체 시나리오를 얻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욱에게로 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임을 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꽤 좋은 치료법입니다.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주기에 이어 세 번째 주기에 이르자 엘리바스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주기에서 그는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모두 생각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잘못될 것입니다. 내 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결코 나쁜 설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언급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구의 두 번의 연설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욱을 방정식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암시적인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백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 번째 주기에 이르렀을 때, 엘리바스는 욱이 생각하는 방식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욱이 온갖 죄를 지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일을 모두 해왔습니다.

끔찍한 사회적 죄. 그리고 친구들도 뒤따를 것입니다. 비록 세 번째 라운드에 도달할 때쯤에는 빌다드와 소발, 빌다드의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는 그 일부를 불렀어요.

그는 단지 25장에 있는 부분만 말했을 뿐인데, 빌닷과 소발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응답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 사람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욱을 노골적으로 거짓 비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욱이 친구들에게 흥미로운 말을 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욱이 자신의 필요를 인식한 측면에서 중요한 세 구절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 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한 공격을 펼칠 것입니다. 오른쪽?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9장을 보십시오. 9장에서 그는 창조 질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에 대한 매우 심오한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가 38장에 이르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비누로 씻어도 이것은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러운 구덩이에 빠뜨리시리니 내 옷까지도 나를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 33절에서 그는 “만일 우리 사이를 중재하여 우리 두 사람에게 손을 얹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게서 옮기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노라” 고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욕은 중재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앞서 욱이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 말한 강력한 내용을 읽었으며,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언자는 높이 계시느니라.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지금 NIV를 읽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을 읽고 있는데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귀처럼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그의 대언자가 높은 곳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물론 19장에서 우리는 헨델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다면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에 그는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가족이 썩은 후에 내 육체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도 그를 볼 것이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혜 문헌을 가져가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구속자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옴이 그 삶에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작업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옴,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대화가 끝난 후 옴은 자신과 자신의 결백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엘리후가 와서 둘 사이를 중재하면서 네 장을 보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엘리후가 들어오면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아람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엘리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 점을 눈치채셨나요? 엘리후는 다른 많은 일을 겪은 후 36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는 27절에, 빗방울, 구름, 소나기, 천둥, 번개, 번개, 천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알립니다.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37장에 들어왔습니다. 럼블, 번개가 온 하늘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를 발합니다(5절). 그리고 그는 37장 전체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38장,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후의 역할 중 일부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동안 엘리후가 맡은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는 뇌우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후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어적 응답은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워야단에 접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의 개요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경험에 따르면, 이 고난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옹호자이시며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장으로 구성된 구두 응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폭풍 속에 나타나시면서 옹을 데리고 창조 질서 전체를 둘러보십니다. 그것은 구두 여행이지만 그는 이 여행에 옹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멋진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나요? 예.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건축가. 기초를 다지는 일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산파이십니다.

바다는 이 사람들이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자신이 통제하고 조산하는 아기로 제시하십니다. 매혹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총사령관, 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 등. 그것은 창조된 질서에 대한 그의 여행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야생 동물에 대한 암시. 그리고 옹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자연 창조물의 아름다움. 물론, 그것은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말, 타조, 독수리 등 모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것이 레비아탄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바이어던은 무서운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옹은 수많은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레비아탄을 조종할 수 있나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글썄, NIV의 각주에는 아마도 약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지만 이 다른 구절들을 볼 때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종말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주님의 칼이 따리를 들고 비틀어지는 뱀, 리워야단이라는 뱀을 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그리고 우리가 리워야단을 우주적으로 악한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욥기에서 리워야단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여행하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차렸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그가 리워야단이 그의 통제하에 있다는 생각과 책의 시작 부분인 1장과 2장 장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사탄의 모습을 휘두르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아직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서류를 갖고 있거나 보내신 후 뵙겠습니다.